

■ 3월 20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27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시 기자회견과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3.27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당일 총파업 투쟁지침(3/27 주야 각 2시간 이상)을 현장에 하달했습니다. 금속노조 총남지부는 3월 24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총파업 집행계획을 결정합니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면서, 한국 사회는 사실상 내전중입니다. 12.3 계엄세력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통해 내란을 종식시키는 돌파구를 노동자들이 만들자는 것이 3.27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입니다.

▲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세력 청산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지침

1.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은 3월 27일(목)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2. 수도권 지부 조합원 및 기업지부 소속 수도권 소재 위원회·지회 조합원은 3월 27일(목)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 참가하고, 저녁 7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비상행동 집회에 결합한다.

\* 단, 3월 27일 전에 현재 선고일 확정시 파업을 유보한다.

현재의 복잡한 쟁점?  
그 사이 더욱 강력해진 극우세력

■ 윤석열 탄핵안이 현재에 접수된지(작년 12.14) 3개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2.25) 3주, 윤석열이 석방된지(3.8) 2주가 넘어갑니다. 노무현 탄핵은 변론종결후 14일, 박근혜 탄핵은 11일만에 선고되었습니다.

법률가들은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 △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 윤석열과 한덕수 탄핵 결론을 동시에 내거나 △ ‘구속 취소’ 를 계기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논란이 있는 점들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내란죄’ 에 탄핵 결론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들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는 3월 24일 10시 한덕수 탄핵 선고일을 잡았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되었습니다. 현재가 이재명 선고 이후에 윤석열 선고일을 잡으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탄핵 결론이 윤석열 탄핵 결론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사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집단들은 세를 불리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들은 윤석열 석방과 헌

재 선고 지연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인양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단적 집단들은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동을 선동하고 시민, 학생에게 테러를 자행합니다. 현재의 선고 지연에 따라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국민의 힘이 세를 과시하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민중들은 윤석열 석방후 다시 광장에 집결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은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거리에 모여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였고 22일 전국 200만 총궐기를 준비중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민주시민과 극우세력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적 고려할 이유 없다”  
26일까지 선고일 정하라”

■ 민주노총은 3.27 총파업을 결정하면서 현재에 명확히 요구합니다. 3월 26일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면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3.27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가 신속한 윤석열 파면 투쟁을 벌이고, 이를 계기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3.27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7일에 맞춰) 상인은 점포문을 닫고, 노점을 철시하고, 농민은 출하를 중단하고, 학생은 동맹휴업에 나서고, 교수가 앞장서 휴강을 해 학교 문을 나서자” 라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작년 12.3 계엄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조합원들은 3개월이 넘도록 쉬지 않고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언제든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임을 지난 기간 확인했습니다.

■ 현재 민생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민중을 위한 국가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국내자동차, 철강산업이 축소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글로벌 무역전쟁속에 국내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산업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민연금, 정년연장, 임금체계, 노동시간단축 등의 의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관료들은 이 틈을 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의 이윤 축적을 위한 정책들을 소리소문없이 손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 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노동자계급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 국가적 내란상태를 신속히 끝내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